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OPHIE AND THE SIBYL

가제 : 소피와 시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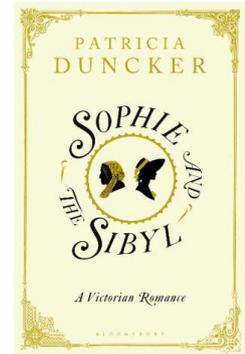
저자 : Patricia Duncker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발행일: 2015년 4월 9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19세기 독일의 철없는 청년이 만난 두 여성, 지성과 지혜, 젊음과 열정 사이에서 커져가는 사랑
실제 일어난 일과 사건들을 허구의 이야기와 능숙하게 조합하는 작가로 잘 알려진 패트리샤 던커가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 특유의 방식을 살린 소설을 발표했다. 영국의 여류 소설가 조지 엘리엇의 일생 중 일부를 19세기와 20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생생히 그리고, 그 속에 젊은 남녀의 혼란스러운 사랑과 문학의 이야기를 잘 혼합한 소설이다.

1872년의 독일. 막스 던커와 볼프강 던커 형제는 베를린에서 번듯한 출판사를 운영 중이다. 실제로 수익을 만드는 쪽은 형인 볼프강이고 동생 막스는 도박과 사창가에 빠져 돈이나 펄펄 써대는 무책임한 스물 셋 젊은이이다.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는 동생 때문에 늘 골치 아픈 볼프강에게, 어느 날 동생을 그 시공창에서 고집어내고 사업에도 도움이 될 만한 묘수가 떠올랐다. 독일에서 온천으로 유명한 흥부르크에 유명한 영국 여류작가 조지 엘리엇이 찾아온다는 소식이 그 시작이었다. 막스를 그곳으로 보내 그녀의 신작 판권도 확보하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얼마간이라도 도박에서 좀 벗어나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시빌’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조지 엘리엇이 쓴 시리즈 소설 ‘미들마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끄는 중이었다. 그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쓰고 있는 그녀를 만나 각듯하게 대접한 후 판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라는 것이 막스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던커 형제의 출판사 입장에서 시빌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작가였다. 형의 요청대로 마침내 시빌과 마주 앉게 된 막스. 남편 루이스와 함께 독일을 찾아 온 그 유명한 소설가는 나이도 많고 엄밀히 말하면 외모는 못난 편이었지만, 깊은 지성과 매력으로 막스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단번에 사로잡는 매력 넘치는 여성이었다. 막스는 시빌에게 금새 마음을 빼앗기고, 형이 부여한 임무, 즉 그녀를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당부를 되새길 필요도 없이 시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영국의 여류작가 조지 엘리엇의 실제 삶과 허구를 작가의 창의력으로 영리하게 배합한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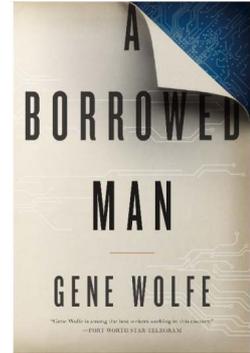
그런데 볼프강이 막스를 그 작은 마을로 보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오래 전부터 던커 가문과 친분이 두터운 부유한 백작의 딸 소피도 바로 그곳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여덟이라는 어린 나이에 빼어난 미모를 겸비한데다 물려 받을 유산도 많은 소피. 볼프강은 일찌감치 그녀를 막스의 짝으로 점 찍은 터였다. 철없이 사는 동생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상대로 소피 만한 여성이 없다고 확신한 볼프강은 두 사람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기억도 돌을 가까운 사이로 만드는데 큰 몫을 하리라 생각했다. 그의 예상대로, 오랜만에 흥부르크에서 마주친 막스와 소피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다. 하지만 고분고분하고 천사 같은 아내가 다정하게 내조하는 결혼 생활을 꿈꾸던 막스는 소피가 그 꿈을 실현할 대상과는 영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는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야성적이라 할 만큼 활달하고 고집도 세고 주장이 강한데다 재미로 하는 도박에도 겁도 없이 큰 돈을 척척 걸지를 앓나, 말을 타러 나가면 못 남성들 못지 않게 아주 공격적으로, 거침없이 달리는 걸 즐기는 여성이었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 그녀를 길들이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로 보였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두 여성을 동시에 만난 막스는 혼란에 빠진다. 확실한 사실은 두 여성이 모두 그의 마음을 매혹시켰다는 것이다.

지혜와 존경할 만한 지성을 갖춘 시빌, 젊음과 열정,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소피. 막스가 두 여성 사이에서 위태로이 균형을 유지하며 갈팡질팡하던 어느 날, 평소 시빌을 우상처럼 동경하고 좋아하던 소피는 시빌을 만나기로 마음 먹는다. 한 자리에 마주하게 된 세 남녀. 그들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까? 사랑의 감정과 무언가에 매혹되고 유혹을 느끼는 감정, 그 두 감정은 과연 다른 것일까? 작가는 조지 엘리엇이 가장 많이 알려졌던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면면을 자신이 만든 허구의 인물 속에 적절히 되살렸다. 탄탄한 전개 속에 매력적인 등장인물들이 펼쳐는 열정 어린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패트리샤 던커(Patricia Duncker)는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현대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Hallucinating Foucault》, 《The Deadly Space Between, James Miranda Barry, Miss Webster and Cherif》, 《The Strange Case of the Composer and his Judge》 등의 소설을 발표하여 다양한 상을 수상하거나 수상 후보에 올랐다.

제목 : A BORROWED MAN
가제 : 대여된 남자
저자 : Gene Wolfe
출판사: Tor Books
발행일: 2015년 10월 20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인간의 존재가 희소해진 100년 후 미래 세상, 공공 도서관에 사는 추리소설 작가의 복제인간

몇 안되는 뛰어난 과학소설 작가로 꼽히는 작가 진 울프. 여든이 넘은 나이에 또 월기왕성하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가 과학과 미스터리를 접목시킨 새로운 소설을 완성했다. 추리소설 작가의 DNA로 만들어진 한 복제인간이 도서관에 책처럼 살다가, 죽은 작가의 책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사람과 만나 벌어지는 복잡한 사건들이 펼쳐진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의 미래. E.A.스미스라는 이름의 복제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은 스파이스 그로브 공공도서관이다. 어느 추리 소설 작가의 뇌에 담긴 정보와 기억을 그대로 남겨서 만들어진 스미스는 도서관 3층 서가에서 지낸다. '서가'라고는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책꽂이가 아니다. 일반인들이 사는 방처럼 꾸며진 이 공간에는 의자와 벽에 세울 수 있는 침대, 작은 테이블까지 갖춰져 있다. 작가들을 복제해서 만든 스미스 같은 존재들이 이 공간에서 살고 있다. 도서관이 문을 닫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샤워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절대 서가를 떠날 수 없다. 인간들은 도서관에 와서 특정 작가의 기억을 가진 복제인간들과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책처럼 '대여'해가기도 한다. 스미스는 콜레트라는 여성에게 두 번 대여된 적이 있다. 죽은 작가의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스미스는 그 작가의 생전 말투와 똑같은 뿐만 아니라 그의 문체를 그대로 옮겨서 말을 한다. 스미스를 찾아온 콜레트는 엄청난 비밀이 담긴 책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냐고 묻고는 제목도 모른다는 그 책을 찾아야 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게다가 특별한 기밀 정보를 마치 책의 내용처럼 책 속에 슬쩍 끼워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스미스에게 묻는다.

살해당한 아버지가 금고에 소중히 보관한 유일한 책 한 권, 가족의 전 재산이 달린 엄청난 비밀

책 인쇄 기술에 관한 지식까지 총동원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설명해주는 스미스. 그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콜레트는 그를 '대여'해간다. 복제 인간은 최대 일주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는 도서관 원칙을 깨고 10일 동안이나 대여를 요청한 그녀는 도서관에서 요구한 큰 돈까지 서슴없이 내고 스미스를 빌려간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화성에서의 살인'을 쓴 작가의 복제인간이기 때문이다. 종이로 된 책을 찾기 힘든 시대에 아버지는 이 책을 인쇄된 형태로 보관했고, 거기에 가족의 재산이 모두 걸려 있는 중요한 기밀 정보를 숨겨두었다. 그런데 아버지

가 누군가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만 것이다. 어떤 비밀이 숨겨졌는지 알 수 없어 차마 경찰에게 알릴 수 없었던 콜레트는 그 작가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스미스를 찾아 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하던 그 책과 책 속에 담긴 비밀을 찾아내려 한다.

콜레트가 건넌 ‘화성에서의 살인’을 펼쳐서 조금 읽어보는 스미스. 정말 그 작가가 쓴 소설이라면 복제인간인 자신에게 아주 생생하게 다가와야 하는데, 문장이 아주 익숙하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설다. 다른 작가와 공동 작업한 소설도 아니고, 미완성 원고도 아니었다. 작가가 죽기 13년 전에 정식 출간된 완전한 책 한 권이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조바심이 난 스미스는 책을 아무데나 펼쳐서 중간부터 읽기 시작하고, 마침내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난다. 콜레트의 아버지가 소장하던 책은, 탈고 후 아주 영세한 출판사에서 단 350권 밖에 나오지 않았던 초판이었다. 아버지는 서고에 보관하던 300권 넘는 인쇄된 책 중에서도 왜 하필 이 책만 금고에 보관했고 이 책에는 무슨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 둘은 함께 그 열쇠를 찾아가지만 급기야 유일한 단서인 ‘화성에서의 살인’ 책도 사라져버리고, 사태는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간다. 과연 이 둘은 진실을 찾아내고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저자 소개>

진 울프(Gene Wolfe)는 네블러 상, 아폴로 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한 작가로 2007년 ‘공상과학 소설 명예의 전당’에 포함됐다. 지구의 미래를 다룬 《The Book of the New Sun》 시리즈를 비롯해 40권이 넘는 소설과 단편을 발표했다.

제목 : FOOD WHORE

가제 : 음식에 빠진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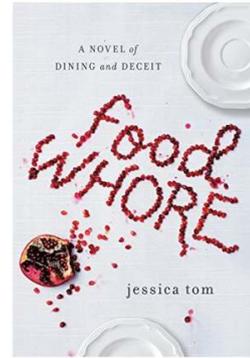
저자 : Jessica Tom

출판사: William Morrow Paperbacks

발행일: 2015년 10월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요리와 음식에 폭 빠진 재능 넘치는 대학 졸업생, 그녀 앞에 던져진 위험하고 달콤한 유혹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티아 문로는 예일대학교에서 음식에 관한 글쓰기와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거대한 뉴욕 시에 입성했다. 티아에게는 오븐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나이부터 요리를 가르쳐주신 할아버지가 계셨고, 대학 시절 할아버지를 위해 독특한 다쿠아즈(머랭 쿠키) 레시피를 개발했다. 심장이 약해 입원해 계시던 할아버지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시는 게 마음에 걸려 만들었던 쿠키는 꽤 반응이 좋았고 주변 친구들의 권유로 <예일 데일리 뉴스>에 다쿠아즈 레시피와 함께 자신의 사연을 기고한다. 세네갈 출신으로 늘 독특한 요리법을 알려주시고, 좋은 재료를 얻기 위해 함께 티아와 여기저기를 누비던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그대로 담은 티아의 에세이는 큰 주목을 받았다. 수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편집장은 먼로에게 직접 개발한 레시피와 인생 이야기를 담은 글을 정기적으로 기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졸업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뉴욕타임스>에서 티아에게 연락을 해 왔다. 편집자인 헬렌 란스키가 티아의 칼럼을 온라인으로 접했는데 그 다쿠아즈 레시피를 실어도 되겠냐는 요청이었다! 티아의 레시피와 글은 '음식을 통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평한 헬렌의 의견까지 덧붙여져 더 넓은 세상에 알려졌다. 티아는 본격적으로 요리와 글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뉴욕대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한다.

삶이 녹아 있는 요리와 이야기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걸만 화려해진 인생, 무엇이 진짜 성공일까?

부푼 꿈을 안고 화려한 뉴욕에 들어선 티아. 하지만 꿈에 그리던 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낙심한 나머지 뉴욕 곳곳에서 온갖 음식을 탐닉하는 생활에 빠져든다. 그런 그녀 앞에 <뉴욕타임스>의 전설적인 음식 비평가 마이클 살츠가 나타난다. 뉴욕대 대학원 환영회 당일, 티아는 학장을 맡고 있는 헬렌에게 다쿠아즈를 선물하기 위해 서성대다가 우연히 헬렌과 마이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다. 제아무리 잘나가는 음식점도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는 인물, 뉴욕의 외식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 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름만 알려졌을 뿐 베일에만 감춰져 있던 평론가 마이클 살츠가 눈 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후 다시 마주친 마이클과 티아, 놀랍게도 그 위대한 인물이 다쿠아즈에 관한 티아의 글을 기억하고 있었다. 게다가 아주 위험한 비밀을 털어놓으며 그녀에게 솔깃한 제안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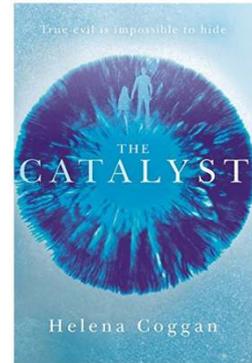
미각을 잃은 평론가의 이름으로 글을 쓰게 된 한 여자의 선택

마이클은 놀랍게도 미각을 잃었다고 이야기한다. 최고의 음식 평론가라는 입지에서 단번에 추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마이클은 티아에게 자신의 '혀'가 되어 음식들을 맛보고 평론을 대신 써 달라고 부탁한다. 그 대가로 최고급 요리들과 명품을 마음껏 누리고,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는 돈과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인턴에서 제외되고 크게 좌절한 티아는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마이클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단 몇 주 만에 티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 아무나 갈 수 없는 유명 식당만 골라 다니고, 쇼핑을 즐기고, 통장에는 잔고가 넘쳐난다. 티아는 말할 수 없는 만족감에 젖어 지내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뉴욕타임스>에 실린 그녀의 글이 마이클 살츠의 이름을 달고 나온 것을 두 눈으로 본 순간, 티아의 내면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성공이라는 것, 진정한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정말 갈망하던 삶이 이런 것이었나? 이제 티아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이대로 머무를지, 어디까지인지 모를 진짜 성공의 길로 나서야 할지 그녀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화려한 뉴욕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최고급 음식들의 향연, 그리고 미각과 펜으로 식당의 생사를 손에 거머쥔 평론가들, 그들만의 세계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성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시카 톰(Jessica Tom)은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푸드 트럭, 음식점 등 다양한 외식업 관련 프로그램의 마케팅과 사업 개발을 돕는 일을 해 왔다. 예일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공부하고 <예일 데일리 뉴스>에 음식점 평론을 기고했다. 위 작품은 그녀의 소설 데뷔작이다.

제목 : THE CATALYST
가제 : 촉매
저자 : Helena Coggan
출판사: Hodder & Stoughton
발행일: 2015년 2월 19일
분량 : 448 페이지
장르 : 소설



우주에 생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간에게 주어진 마법의 힘, 그로 인한 첨예한 갈등과 분열

지금으로부터 먼 미래의 런던. 열다섯 살인 로즈는 아버지 데이빗과 함께 ‘선택된 자들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18년 전, 인간이 사는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과학자들의 실수로 우주와 연결된 공간에 구멍이 생기는 바람에 지구 바깥의 완전히 다른 영역에 존재하던 영혼들이 그 구멍을 통해 지구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세상을 돌아다니던 영혼들은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했고, 그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영혼과 만나 마법의 힘을 얻게 된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같은 일을 겪어도 마법을 부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마법의 힘을 얻은 사람들도 그 힘의 강도는 다 달랐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변화에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뜻밖에 놀라운 능력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전 세계는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 오랜 싸움과 화해의 노력 끝에 이제야 겨우 잠잠해진 상황이지만, 세상은 그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선택된 자들의 세계’와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로 이루어진 ‘에쉬카인드’로 분열됐다. 정부는 가까스로 통제력을 되찾았고, 힘들게 찾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관청’을 설립한다. 법 집행 권한을 부여 받은 관청은 선택된 자들만이 근무하면서 에쉬카인드 사람들을 잔혹하게 관리하는 기관이다.

로즈의 아버지는 이 관청에서 근무한다. 자연스레 어린 시절부터 이곳을 드나들며 자란 로즈는 아주 영리하고 재치 넘치는 소녀로, 또래 아이들처럼 당차고 가끔은 버릇없는 행동도 하지만 독립적이고 모든 일에 열정적이다. 어느 부녀들보다 아버지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란 로즈는 아버지처럼 언젠가 관청에서 일할 날만을 꿈꾸고 그것이 자신의 당연한 미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로즈와 아버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혹시라도 탄로나면, 둘 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무섭고도 거대한 비밀이었다.

또 다시 시작되는 파괴적인 전쟁, 커다란 비밀을 안고 분열을 막으려는 한 어린 소녀의 고투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로즈에게 어느 날 협박의 메시지가 전해진다. 누군가를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그 알 수 없는 존재는 놀랍게도 로즈와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것을 빌미로 로즈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자신과 아버지의 목숨을 지키려면, 늘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한 관청을 배반해야 한다. 이제 모든 선택은 로즈의 손에 달렸다.

18년 전, 선택된 자들과 에쉬카인드 사람들 사이에 겨우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건 마지못해 체결된 임시 화해일 뿐이었다. 서로 완전히 분리된 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 마음 속에는 전쟁이 그런 식으로 종결된 것을 못마땅해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만족의 씨앗이 남아 있었다. 억지스러운 화해 대신 어떻게든 상대방을 누르고 짓밟아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었다. 비극적인 전쟁이 또 다시 임박한 가운데, 평생을 살아온 '선택된 자들의 세계'에 대한 충성심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협박범 앞에서 로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로즈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데이빗의 진짜 과거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로즈는 자신의 비밀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지킬 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열다섯 살인 작가가 열세 살에 초안을 완성한 소설로, 현재 이 작품의 속편을 쓰고 있다.

<저자 소개>

헬레나 코건(Helena coggan)은 런던에서 학교에 다니며 글을 쓰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ONCE UPON A TIME
가제 : 옛날 옛날에: 동화이야기
저자 : Marina Warner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4년 10월
분량 : 226 페이지
장르 : 인문



시대와 문화를 넘어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동화, 문학의 한 장르로서 동화의 역할과 의미

마녀 여왕, 아름다운 공주부터 엘프, 괴물, 요괴, 거인, 그리고 벗겨진 유리구두를 남기고 떠난 여자, 독이 든 사과, 마법의 열쇠, 거울 등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물건, 이미지는 오랜 세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독자들을 매혹시킨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서 펼쳐지는 동화 속 환상적인 이야기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처음 등장한 형태 그대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새로 전해질 때마다 새롭게 다듬어지기도 한다. 확실한 건 문학 장르 중에서 동화만큼 많은 사람들을 황홀하게 하고 상상력을 불러 일으킨 장르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대체 동화란 무엇일까?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동화가 도덕, 성, 사회에 관하여 독자들에게 알리고 전하려는 건 무엇일까? 동화의 범위는 지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매우 포괄적이며, 전통 문화나 신화의 역사와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동화를 이루는 핵심에는 자연과 초자연적인 존재, 상상과 공상, 심리분석, 남녀 평등주의 등 수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다. 작가로 오랜 세월 활동하면서 늘 동화를 사랑한 저자는 이 책에서 각 시대에 등장한 수많은 동화들을 살펴본다. 저자는 빅토리아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책이나 연극,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 곁에 찾아온 동화들 중에서 ‘빨간 모자’, ‘신데렐라’, ‘잠자는 숲 속의 공주’, ‘그림 형제’, ‘헨델과 그레텔’, ‘인어공주’와 같은 고전 동화부터 월트디즈니의 ‘백설공주’ 같은 현대식 동화, 고딕풍으로 해석된 ‘판의 미로’까지 다양한 예시를 통해 ‘동화’라는 장르에 대해 정의하고 시대와 역사를 거쳐 동화라는 문학의 한 장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평가한다. 그리고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동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짚어본다.

구전 동화부터 연극,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현대 동화까지, 동화 특유의 매력을 고찰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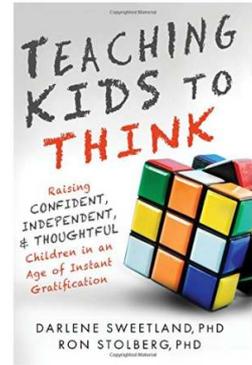
책은 총 아홉 장으로 구성된다. 저자는 엄격한 연대순으로 동화의 역사를 나열하기보다는 동화와 관련된 특별한 주제별로 각 장을 엮었다. 3장 ‘책장에 담긴 목소리: 이야기, 이야기꾼과 번역

가'의 경우 구전 동화와 마더 구스처럼 전승 동요를 전달하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존재, 그리고 때로는 원문을 극단적으로 바꾸어버리기도 했던 번역가들이 동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5장 '어린애 같은 것: 그림과 대화'에서는 동화에 삽화가 어떻게 등장하여 발전했는지 알아보고, 9장 '연극으로 영화로: 환상의 형태'에서는 19세기 초에 발레로 동화를 표현한 사례부터 20세기, 21세기 들어 영화로 제작된 동화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저자는 동화가 진실을 찾고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동화는 단지 문화적인 가치를 전하고 실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한다. 방대한 자료와 저자의 날카로운 의견, 생생한 일러스트레이션이 잘 조합된 책으로 어릴 때 처음으로 읽었던 동화가 어떤 역사와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즐겁게 읽을 수 있다.

<저자 소개>

마리나 워너(Marina Warner)는 신화와 동화를 오랜 세월 연구해온 학자이자 작가로 《Alone of All Her Sex: The Myth and the Cult of the Virgin Mary》, 《Stranger Magic: Charmed States & the Arabian Nights》, 《From the Beast to the Blonde - on Fairy Tales and their Tellers》 등 수많은 저서를 발표했다. 2013년에는 '셰이크 자예드 상(Sheykh Zayed Prize)'과 '트루먼 카포테 문학비평상(Truman Capote Award)'을 수상했다.

제목 : TEACHING KIDS TO THINK
가제 :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기
저자 : Dr. Darlene Sweetland, Dr. Ron Stolberg
출판사: Sourcebooks
발행일: 2015년 3월 3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육아, 교육



생각 안 하고 편히 사는 법을 터득한 아이들,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는 부모들의 문제점과 해결책

“내 아이패드가 충전이 안 됐잖아! 아빠가 내 아이패드 충전을 안 해놨어!”라고 고래고래 외치는 일곱 살짜리 꼬마, 시험인걸 깜박하고 공부를 해놓지 못한 중1 딸에게 “선생님께 연락해서 시험 다시 볼 수 있게 해줄게.”라고 말하는 아빠, 친구들과 다투고 낙담해있는 열살 짜리 아들에게 “내가 개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음에 핸드볼 할 땐 너 꼭 끼워주라고 말할게.”라고 위로하는 엄마. 요즘 아이들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에 금세 화를 내고 좌절한다. ‘문제’라고 할 것도 없는 소소한 갈등이나 자신이 만든 문제, 혹은 혼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간단히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고 토로한다. 왜 요즘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오늘날 아이들은 지도를 읽을 줄 모른다. 구글에 검색하기만 하면 빛의 속도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준비물을 깜박하면 엄마나 아빠에게 전화만 넣으면 된다. 알아서 즉각 구해다 주니까 말이다. 기술이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 사는 어린 세대들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세대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그 어느 아이들보다 어른에게 깊이 의존한다. 실수를 저지러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한 마디로 ‘생각 안 하고 사는 법’을 배운 것이다. 임상 심리학자인 두 저자는 이 독특한 세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정서적, 신경학적 문제를 짚어보고 어른인 부모들이 쉽게 걸려들어 의도치 않게 자녀의 이런 문제를 악화시키는 다섯 가지 덫을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1장에서는 먼저 부모들이 걸리기 쉬운 이 ‘덫’의 정체를 알아보고, 자녀를 쉽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아이로 만들지 않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본다. 2장은 부모의 개입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고 특히 부모가 아이들이 알아서 일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어 3장에서는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게 보호하고 싶은 부모의 충동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의존성을 키우는지 설명한다. 4장은 아동 발달 차원에서 아이들이 자신이 닦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해결해본 경험이 아이의 인생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발달 과정에서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계를 소개한다.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 관한 정보와 함께 정말 아이를 위하고 보호하는 길을 알려주는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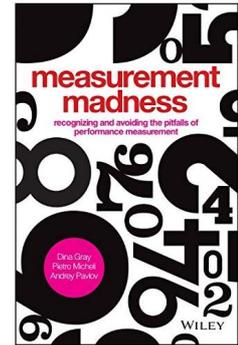
5장은 실수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겪어보지 못한 아이는 뇌가 어떻게 발달하며 이것이 계획 수립과 문제 해결, 의사결정 능력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설명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부모들이 아이가 기회를 잃고 더 나아가지 못할까 심한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오히려 잘못된 교육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6장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 성공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멀리하고 열른 누가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뒷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도와주고 이끄는 방법을 알려준다. 7장과 8장에는 아이들이 최신 기술을 생산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스마트폰, 비디오 게임, 소셜 미디어, 인터넷 등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9장에서는 운동이 아이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고, 10장에서는 ‘물질 남용’이라는 주제로 넘어가서 왜 현 세대의 아이들이 유독 물질 중독에 취약한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11장은 십대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반인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급하고 즉각적인 해결만 찾는 아이들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다. 이어 12장에서는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 앞에서 즉각적인 만족을 찾는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마지막 13장에서는 앞선 내용을 정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 번 짚어 본다. 부모가 아이 대신 해주는 일이 지나치게 많아진 시대, 불편함을 모르고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을 무조건 보호하고 챙기는 것이 왜 괜찮지 않은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더 나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한 책이다.

<저자 소개>

달린 스위트랜드(Darlene Sweetland)는 임상 심리학 박사로서 20년 이상 아동,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해 왔다. 저서로는 《Intellectual Disability and Mental Health》가 있다.

론 스톨버그(Ron Stolberg)는 임상 심리학 박사로서 알리안트 인터네셔널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가족 치료사로 활동하면서 아동 행동장애 문제를 주로 상담해 왔다. 저서로는 《Therapeutic Assessment with the MMPI-2》 등이 있다.

제목 : MEASUREMENT MADNESS
가제 : 잘못된 성과평가 시스템의 오류
저자 : Dina Gray, Pietro Micheli, Andrey Pavlov
출판사: John Wiley & Sons
발행일: 2014년 12월 5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경영



조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 잘못된 평가는 실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회사마다 마련된 성과 평가 시스템은 지난 20년 동안 여러 형태로 변화하면서 조직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더 크게는 우리의 업무 방식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제는 성과 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게시물, 전시물, 보고서, 복잡한 정보들을 심지어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고 직원들의 업무 과정을 세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료 수집과 분석, 보고를 위해 회사가 투자하는 것이 과연 조직 전체에,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 효율에 정말 도움이 될까? 세 명의 저자는 믿기 힘든 실제 사례들을 이 책에서 제시하면서 잘못된 성과 평가가 얼마만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날카롭게 꼬집고 대체 어떤 요소가 그런 문제를 만드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직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성과 평가 시스템의 일반적인 문제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성과 평가 시스템은 경영진이 좋은 의도에서 도입하는 제도다. 즉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감도 높이고 업무의 결과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도입 초반에는 의도한대로 잘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직원들은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일만 집중해서 신경 쓰고, 보고서는 발행 횟수도 늘고 한 편의 양도 크게 느끼는데다 내용을 보면 업무에 굉장한 개선과 성과가 발생한 것 같은 설명이 가득하지만 전체 실적은 제자리걸음이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할까? 성과평가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도입하고 시행하는지에 관한 책들은 서점에 즐비하지만, 이 책은 시각을 달리하여 잘못된 평가 시스템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결과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조직 변화를 지적한다. 놀랍게도 이런 잘못된 시스템이 수많은 회사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된 성과평가 시스템의 사례로 배우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평가 시스템의 원리와 효과, 의미

책은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는 잘못된 성과 평가 시스템으로 조직이 점차 '미쳐 돌아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성과, 그리고 성과 평가가 대체 무엇인지 그 정의와 의미부터 알아본다. 2부는 본격적으로 성과의 측정과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무엇에 주목해야 하고 각각의 결과를 제대로 비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3부는 평가와 경영의 관계로 초점을 돌려서 조직

전체가 평가하려고 하는 주된 목표, 즉 평가의 표적이 무엇이고 그 표적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효과적인 보상 체계에 관한 정보와 잘못된 보상 제도의 파괴적인 결과를 알려준다. 마지막 4부에서는 앞선 내용을 정리하고 잘못된 평가로 발전이 아닌 엉뚱한 길에 들어선 조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실제 여러 회사와 정부기관 등에서 성과 평가로 인해 발생했던 다양한 이야기와 사례들을 통해 성과 평가가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 모든 사태는 아무 것도 아닌 사소한 판단 착오, 작은 생각 하나에서 시작된다. 경영진은 정말 중요한 요소보다 평가하기 '쉬운' 요소를 평가하려고 하고, 업무와 관계가 없거나 업무 효율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은 항목을 굳이 억지로 정량화해서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평가 자료가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판단이 깊이 개입된다. 이 모든 문제가 쌓여 평가는 산으로 가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만다. 이 책은 설계부터 잘못된 평가 시스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널리 잘 알려진 지침이라고 해서 모든 조직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 조직의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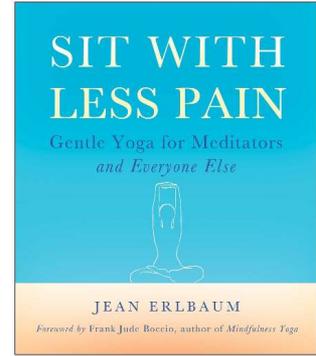
<저자 소개>

디나 그레이(Dina Gray)는 영국 크랜필드 대학교의 경영자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맡고 있으며 'Innovation Group plc.'에서 지역 자문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다.

피에트로 미첼리(Pietro Micheli)는 영국 워릭 경영대학원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영 컨설턴트로 30곳이 넘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과 일하고 있다.

안드레이 파브로프(Andrey Pavlov)는 영국 크랜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컨퍼런스를 열어 강연을 하고 있다. 산업계, 학계 다양한 매체에 글을 발표했다.

제목 : SIT WITH LESS PAIN
가제 : 좌식생활 통증을 위한 요가
저자 : Jean Erlbaum
출판사: Wisdom Publications
발행일: 2014년 7월 17일
분량 : 200 페이지
장르 : 건강, 운동



오래 명상하는 사람들,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의 생활에 꼭 맞는 요가의 이완 동작들

책상 앞에, 운전석에, 혹은 명상을 하면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고정된 자세에서 비롯된 신체 각 부위의 통증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몸과 마음을 고요한 명상의 상태로 이끌 수 있는 실용적인 요가 동작을 정리한 책이 탄생했다. 저자는 오래 앉아 있는 자세에서 흔히 발생하는 관절 통증,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자세와 동작을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친절하게 소개한다. 전체적으로 인체의 해부학적 구도에 따라 구성하여 독자들이 어깨, 무릎, 고관절 등 불편한 부위를 골장 집중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요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 중 하나가 바로 몸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가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편안한지, 호흡과 심장 박동의 리듬은 어떤지 조용히 귀 기울이는 기회가 된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깨어 있는 상태'란 그저 어떤 생각을 하고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자신의 무릎이 쿡쿡 쑤시지는 않는지, 호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몸이 보내는 불편한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각이 나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여겨야 한다. 그래야 내가 현재서 있는 위치를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그 결과 모든 상황을 보다 큰 가능성을 열고 수용할 수 있다. 몸과 마음, 감정, 습관, 패턴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모든 스트레스와 압박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다. 30년 넘게 요가를 지도해 온 저자는 장시간 명상하는 사람들이 목과 어깨가 결리고 허리와 등 중앙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고관절이 당기고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람마다 특히 약한 부위나 스트레스가 유독 집중되는 부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그런 통증을 간단한 요가 동작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얼굴부터 상체, 무릎, 발목까지 해부학적 분류로 각 부위별 긴장과 통증을 덜어주는 자세와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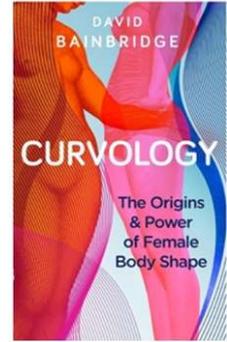
전신을 포괄하는 다양한 요가 동작이 소개된 이 책에서 저자는 효과적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호흡법과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요가 매트나 의자 위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되며, 눈, 턱, 목, 어깨, 등 윗부분이 포함된 상체부터 시작하여 몸통, 다리, 무릎, 발목, 발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휴식과 이완도 중요한 동작의 한 부분으로 강조하며 각 동작 사

이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아닌 따로 시간을 내어 집중해서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할 단계로 설명한다. 책 중반부부터는 개별 동작 여러 개를 연결하여 실시하는 '시퀀스' 동작을 소개한다. 각 동작의 길이는 다양하며, 신체 이완과 에너지 증대, 몸의 특정 부위의 긴장과 불편한 느낌, 통증을 완화하는 등 그 목적도 다양하다. 순서대로 연결되는 동작들과 시퀀스 동작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칭 강도와 방법을 찾고 조금씩 강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으로, 이해하기 쉬운 삽화의 도움을 받아 책을 펼쳐놓고 완벽한 자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

<저자 소개>

진 얼바움(Jean Erlbaum)은 요가와 명상을 1965년부터 연구하고 1972년부터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요가 강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특히 쥘 요가를 30년 이상 연구했다.

제목 : CURVOLOGY
가제 : 여성의 곡선
저자 : David Bainbridge
출판사: Portobello Books Ltd
발행일: 2015년 2월 5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과학, 문화



포유류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뚜렷한 굴곡이 나타나는 여성의 몸매와 그 놀라운 영향력

여성의 신체는 생존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욱 ‘여성스러운’ 특징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포유류에 속하는 모든 암컷 중에서 인간 여성처럼 몸에 곡선이 발달한 예는 찾을 수 없다. 오직 여성들에서만 발달한 몸의 독특한 라인은 생물학적인 기능, 즉 임신과 출산, 양육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굴곡이 뚜렷한 몸매가 현재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미래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동물해부학을 가르치는 저자는 진화 생물학과 심리학을 접목시켜 이 책에서 여성의 이 특징적인 몸매와 먼 옛날부터 현대, 그리고 미래 사회의 관계라는 특이한 주제를 다룬다. 저자는 포유류 중에서 유독 여성에게만 몸매에 곡선이 뚜렷하게 발달한 이유를 고찰하고, 이 특징이 성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 자아상에도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다소 놀라운 견해를 전한다.

현대 서구사회는 여성의 몸에 유난히 집착한다. 수많은 잡지들은 몸매를 주제로 남성과 여성 모든 독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안달이고, 패션 업계는 몸매를 굉장히 강조하거나 은폐하고 왜곡시키기로 유명하다. 여성의 몸이 너무 비대하다던가, 너무 작다던가, 부당하게 이용된다는 이야기들도 끊이지 않는다. 여성들이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일까라는 요상한 통계 결과도 계속 발표되는가 하면 여성들은 대다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매 기준에 따라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한다. 인위적으로 보정된 몸매가 담긴 가짜 이미지와 사진이 곳곳에 걸리고 이로 인해 완벽한 몸매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정신이 무너져버린 젊은 여성들까지 늘어나며, 여러 매체가 그런 인공적인 몸매를 내세우며 온갖 상품을 광고한다. 이렇게 여성의 몸은 사회 곳곳에서 소재로 등장하고 이야기된다.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여성의 몸매에 매혹되고, 몸매에 대해 논의하고, 불편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하는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생식 생물학자이자 의사인 저자는 이 문제를 문화적, 사회학적 접근 방식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진화, 생물학, 심리학적 관점을 동원하여 이 책에서 풀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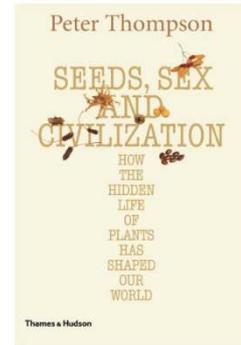
남녀 모두 여성의 몸에 유난히 집착하는 사회, 생물학, 진화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몸매의 의미

저자는 여성의 신체가 인간의 삶 전체와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 책도 그에 맞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1부 '몸'에서는 생물학적인 신체의 관점에서 '여성스러움'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여성이 어떻게 곡선이 돋보이는 독특한 몸매를 얻게 되었는지, 현대를 사는 젊은 여성들이 신체를 어떻게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고찰하고 여성들마다 몸의 형태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가 건강과 신체 발달, 생식 능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한다. 2부 '마음'에서는 여성의 신체가 인류의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설명한다. 여성의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몸매를 갈망하는 마음의 뿌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보고 현대 여성들이 음식과 기분, 몸매로 인해 느끼는 온갖 압박감 앞에서 어떻게 타협하고 살아가는지 이야기한다. 3부 '사회'는 여성의 신체가 세상 전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한다.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여성의 몸을 어떻게 판단하고, 변형시키고, 은폐하고, 경멸해왔는지 알아본다. 예술사와 현대 매체 문화, 실제 여성들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보충 자료로 활용하여 명쾌하고 흡입력 있는 글 솜씨로 여성의 몸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물리적, 정신적, 사회학적으로 골고루 고민해본 책이다.

<저자 소개>

데이빗 베인브리지(David Bainbridge)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수의학과 동물학을 공부하고 현재 동 대학에서 임상수의해부학을 가르치고 있다. <중년의 발견> 등 다양한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SEEDS, SEX AND CIVILIZATION
가제 : 씨앗, 섹스, 그리고 인류 문명
저자 : Peter Thompson
출판사: Thames & Hudson
발행일: 2010년 9월 30일
분량 : 280 페이지
장르 : 사회



씨앗의 존재, 작물과 야생 식물의 역할을 파악하면서 발전해온 인류 문명의 역사

인류 문명의 역사와 인간의 진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거주지와 생활 방식 전반에 영향을 주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 주인공은 놀랍게도 ‘씨앗’이다. 식물 생리학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인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씨앗의 존재와 활용 방법, 씨앗의 원천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작물과 야생 식물의 생존과 생산성에 씨앗이 주는 영향을 점차 파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짚어본다. 현대 사회에서 씨앗이라고 하면 작은 종이 봉지에 담긴 채 판매되는 식물 씨앗만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인류 전체의 방대한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작은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와 영향력을 지녔는지 절감할 수 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쌀, 밀, 커피, 견과류, 콩, 올리브와 같은 작물을 맨 처음 누가 발견하고 활용할 생각을 했을까? 저자는 인류가 씨앗의 기능과 그 기능을 발휘하는 방식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 발자취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책은 총 여덟 장과 결론으로 구성된다. 또한 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단서를 근거로 씨앗의 비밀을 찾아낸 영웅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 중에는 괴짜도 있고 탐험가, 아마추어 연구자, 큰 존경을 받던 전문가 등 다양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찰스 다윈이나 멘델처럼 널리 알려진 과학자와 니콜라이 바빌로프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학자들까지 고루 소개된다. 야생 꽃이 재배 식물이 되려면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특히 흥미롭다. 현재 전 인류가 섭취하는 전체 열량의 60 퍼센트를 밀, 쌀, 옥수수, 설탕 이 네 가지 작물이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곧 이 네 가지 작물이 없었다면 인류 문명의 발달이 불가능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저자는 인간이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밀이 어떻게 관여했으며, 왜 옥수수는 그 역할을 할 수 없었는지 설명한다.

작디 작은 ‘영리한’ 씨앗들이 인간의 진화와 삶 전체에 발휘한 엄청난 영향력

꽃과 씨앗이 얼마나 ‘영리한지’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진진하다. 꽃은 꽃가루를 가져다 줄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그 대상을 유혹해야 한다. 그 역할을 하는 곤충과 새, 박쥐 입장에서 바라보면 꽃이 일종의 길을 찾는 표지판 역할도 하고 몸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 역할도 한다. 꽃은 바로 이 점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알며, 빛을 받아 색이 변하는 색소를 적극 활용하여

그들의 눈에 띄려고 노력한다. 또한 식물은 특별한 색소 덕분에 빛이 공급되는 방향을 파악하고, 주어진 빛의 강도에 따라 씨앗을 얼마나 노출시킬지, 또 어느 시점에 밖으로 내보낼지 결정한다.

멘델이 직접 기른 완두콩으로 일궈낸 유전학의 놀라운 발견이 멘델에 대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굳게 믿어준 스승 덕분이었다는 사연, 찰스 다윈과는 또 다른 내용의 자연선택과 진화의 개념을 정립한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의 이야기, 작물의 근원과 생물학적 다양성을 지리학적으로 밝혀낸 러시아의 과학자 니콜라이 바빌로프의 업적과 그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종자 은행의 역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소련을 점령했을 때 레닌그라드에 설치된 '식물산업연구소'에 은밀히 보관된 종자가 다행히 식량으로 먹히지 않은 사연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과학의 훌륭한 업적과 노력을 얼마나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경고까지. 저자는 이 책에서 종자와 농업을 역사, 철학, 사회, 과학의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더불어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작물과 종자 보존, 식물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책 전체에 골고루 담긴 생생한 컬러 사진과 흑백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인류 역사에서 식물이 담당한 숨겨진 역할을 재미있게 설명한 책이다.

<저자 소개>

피터 톰슨(Peter Thompson)은 영국 왕립식물원에서 식물생리학 분야의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며 멸종 위기 식물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밀레니엄 종자 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인물이기도 하다.